

- 親睦 · 福利增進
- 相扶相助
- 放送文化暢達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 사우회 / 발행인 서병주 / 편집인 김성배 / 우110-310 서울 중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709 / 전화 (02)733-2189, 732-8159/ 팩스 (02)3210-1449

회원여러분은 지금...

동정

- ◆ 박인채 / 4년만에 부활된 1TV '누가 누가 잘하나'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위촉(4/22)
- ◆ 안국정(SBS 사장) / 한국 민영방송협회 총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4/8)
- ◆ 안평선 / 6월 1일 ~5일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공연되는 고려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 연극 '당나라 그림자'에 카메오로 출연
- ◆ 오건환 / 5월 10일 ~6월에 정 13일 까지 35일간 동유럽지역을 배낭여행으로 탐사
- ◆ 윤기로 / 5월 12일 ~23일 2주간 부부동반으로 서유럽 6개국 여행
- ◆ 이길영(대구방송사장) / 민방협 부회장으로 선출
- ◆ 이태행 / 올림픽컨트리 클럽 사장 취임(4/20)
- ◆ 최동호(청송회 회장) / 5월 26일 오후 6시에 한국일보 12층 송현클럽 북한산 홀에서 정기총회 개최
- ◆ 호천웅(신성대교수) / 월간 '문예사조'를 통해 수필가로 등단.

자녀결혼

- ◆ 조두현 / 아들(5/ 8)
- ◆ 이건목 / 딸(5/14)
- ◆ 조동균 / 아들(5/21)
- ◆ 유병민 / 아들(5/22)
- ◆ 김광일 / 아들(5/28)
- ◆ 류한평 / 아들(6/ 4)

대방동성당 낮2시
◆ 이정호 / 아들(6/11)
서초동 강남문화센터 낮2시

부음

- ◆ 유병민 / 모친상(4/16)
- ◆ 박기의 / 부친상(4/19)
- ◆ 예장기 / 모친상(4/26)
- ◆ 김정숙 / 모친상(4/27)
- ◆ 이성원 / 장인상(5/ 3)
- ◆ 김광수 / 상 배(5/ 7)
- ◆ 김기석 / 상 배(5/13)
- ◆ 정재화 / 장인상(5/19)

고희

- ◆ 이승록 / 5월 7일
- ◆ 전의섭 / 5월 7일

희수

- ◆ 안현태 / 5월 6일
- ◆ 김성열 / 5월 10일

별세 회원

◆ 엄우용회우가 4월 21일 지병으로 별세. 향년 61세. 고인은 1968년에 KBS에 입사했으며 중도에 퇴직한 후 복직, 2002년 3월에 퇴직했으며 방송망운용국에 근무했다. 유족은 부인과 1남 2녀

KBS 공제회 수혜자 범위 확대

KBS공제회는 작년4/4부터 공제회 준회원 자격 범위를 '정

년 및 명예퇴직자'에 15년 이상 재직 한 의원면직자를 포함 확대 실시하고 있다. 해당자는 결혼 청첩장 등 관련 증빙서류와 은행주좌번호 등을 게재하여 공제회에 신청해야 한다. 회우들의 빠짐없는 활약을 바란다. 지원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본인사랑=30만원(조의금), 조화
- ▲배우자사랑=10만원(〃), 조화
- ▲부모상(배우자부모포함)=조화
- ▲자녀결혼 =10만원(축의금)

회장직무대행, 김수웅부회장

서병주회장은 5월 4일부터 7월 중순까지 해외 출장중 직무대행자로 김수웅 부회장을 지명했다. 서회장은 이 기간중 가족상봉 및 사업협의차 미국을 방문.

신임이사들 협찬금 기부

2005년 신임 이사들이 분회에 협찬금을 기부했다. 구본출, 류한평, 서정수 정근춘 등 4명의 이사들은 각각 10만원씩 40만원을 분회 사무국에 기증했다.

알림

탐석·문화재 탐방행사

6월 9일 동강·보덕사 지역에서 '탐석 및 문화재 탐방'이 상반기 마지막 친목행사로 실시됩니다.

- 일자: 2005년 6월 9일 (목)
- 행사지:영월 어라연-동강탐석-보덕사 탐방
- 출발일시: 사우회 앞 오전 7시, 고속터미널 앞 오전 7시 30분
- 참가신청: 2005년 6월 9일 낮 12:00까지
- 선착순 45명 마감예정
- 개별통지는 생략함

신입회원 환영합니다

- 김장배 / 138-791, 서울 송파구 잠실3동 갤럭시 팰리스 C동 308호 (02-2145-4050, 010-7979-4030) kjb0344@yahoo.co.kr
- 이인철 / 570-958, 전북 익산시 동산동 300-1 (063-857-0178) incoul@naver.com
- 권은파 / 405-869, 인천 남동구 민수6동 1084 금성맨션201 (032-874-0009 남동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연합회) (0505-686-1074, 010-3921-1074) boss45@kbs.co.kr
- 백운학 / 449-846,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703 동보초 103-701 (031-302-5814) eun2joo@hanafos.com
- 이정욱 / 607-011, 부산 동래구 명륜1동 310-1 (051-556-6770,017-554-6770, 대교농장 055-883-5269) us50423@kbs.co.kr
- 권오승 / 614-103, 부산 부산진구 당감3동 790 국제백양초 9-1401 (051-896-5643, 011-592-2580) kos1181@kbs.co.kr
- 김청길 / 135-898, 서울 강남구 압구정1동 369-1 현대초 31-1202 (02-518-0923, 011-9899-0923) cheongkil7@hanmail.net
- 윤 군 /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3-31 (02-582-5717, 011-756-5717)
- 이성교 / 157-872,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102-46 (02-2607-9700, 017-232-8750) skyo0137@yahoo.co.kr
- 김시영 / 702-853, 대구 북구 칠성2가 378-4 삼성초 105-1704 (053-352-2850, 011-507-7171) ksy@kbs.co.kr
- 김대영 / 412-22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햇빛마을 2102-303 (031-938-1458, 011-9047-1458) kdy@kbs.co.kr
- 윤동균 / 361-2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328-8 (043-232-0875, 011-491-0875) yoon0225@kbs.co.kr
- 이명용 / 137-072,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359 현대리츠빌 303호 (02-523-7930, 011-708-3800, 경희대학교 정경대학언론정보학부 객원교수)leemy@kbs.co.kr
- 윤광선 / 137-872,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47-10 세진빌라 203호 (02-522-3355, 011-781-3666 한국자동차관리사협회 회장) ksyoon@kbs.co.kr
- 이정호 / 135-240, 서울 강남구 개포동 649 경남초 8-502 (02-576-4158, 011-758-4311)
- 박노수 / 150-04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561 동부센트레빌초 101-2002 (02-2631-5641, 011-787-5641) pns@kbs.co.kr
- 김홍현 / 301-070, 대전 중구 목동 3-32 (042-257-0036, 011-9839-0036) yhkim11970@hanmail.net
- 마권수 / 136-085, 서울 성북구 보문동5가 77번지 (02-926-4367, 011-225-5162,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02-3219-5560 mahks@kbs.co.kr

회비납기

김두석 이광로 강영순 김장배 김선원 장순재 박명수(배우)
김진관 전옥수 김경태(장부) 이인철 한석경 김봉식 김성수
박행남 권은파 차명희 예장기 김기석 이영수 김신영
백운학 이정욱 권오승 안현태 서진교 김용규 김광모
이원세(부산) 이병두 류재남 최종림 박영채 지정웅 황능연
김시영 이성교 윤 군 김청길 김대영 이정석 노병국
김진삼 문인상 윤광선 박종권 유경희 이정호 이흥주
박노수 김홍현 이승규 마권수 허민채 허영구 윤동균
이명용 김두중 현 서 조남민 김갑희 4월 16일 ~ 5월 16일

◆본회 홈페이지 : www.kbssau.or.kr/KBS 사우회 ◆E-mail : kbssau@yahoo.co.kr ◆세미나실 Tel 781-8362, FAX 781-8269

테세라

Well-Being Life의 시작입니다!

"테세라는 자연치아에 가장 가까운
최신 미용치료 시스템입니다."

생체 친화적인 강화레진의 사용으로 안전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금이나 아말감의 단점을 보완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치아로 만들어 드립니다.
치과의사와 테세라를 상담하세요!



대표전화 080-789-2121 www.biscoasia.com

TESCERA ATL Indirect Resin System

"세계 1위"

Reality & Dental Advisor는 미국에서 치료 재료의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는 의학 권위자입니다.



테세라는 이렇게 좋습니다!

- 자연치아와 동일한 강도와 색상을 갖습니다. (매우 단단하며 뛰어난 색상을 갖습니다.)
- 자연치아와의 결합력이 우수하여 쉽게 깨지거나 탈락되지 않습니다.
- 자연치아의 식재량이 적어 치아를 최대한 보존합니다.
- 수술이 필요없으며 치료기간이 짧습니다.
- 맞물리는 상대 치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며 가법입니다.



歷史散策-14



서기 한

지난 12회 우정총국편에서 꼭 해야 할 얘기가 있었는데, 지면관계로 생략했기에 이번 회에 보태려고 한다.

우정총국 개국 연회상에서 밖으로 뛰어나간 親軍營使 閔泳翊이 개화당장사들에게 칼을 맞아 중상을 입었으나 미국인 선교사 알렌(Allen)의 치료로 목숨을 건졌다고 했다. 이 알렌은 名醫의 소문이 자자하여 환자가 밀려들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민영익은 민씨정권의 명실 상부한 귀공자였다. 生父는 台鎭. 升鎭가 족사한 뒤, 이 집으로 입양하여 왕비의 친정 조카, 국왕의 처남이 되었다. 17세에 급제하여 (왕비가 영익의 나이가 웬만큼 차기를 기다려 특별과거를 마련해서 급제시켰으니, 그뒤 출세는 물론가지었다.)홍문관 등 장관이 보장되는 청요직(淸要職)을 단기간에 거치고 이조참의

(吏曹參議)에 이어 불리기부어문(統理機務衙門) 군무사당상(軍務司堂上:정부기구의 신권제에 의해 兵曹를 제쳐놓고 실질적인 軍事擔當)으로 신식 군대인 별기군(別技軍)의 책임자가 된것이 20대 초반이었다. 이때만해도 泳翊은 이른바 개화파였고 그의 집 사랑엔 개화파의 면면들이 자주 출입했다. 金玉

개화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갑신정변때는 주동과가 지목한 첫째 제거대상이 됐던 것이다.

영익을 치료한 알렌은 고종의 신임을 얻어 전의(典醫)가 되었으며 신식 왕립 병원인 廣惠院을 개설할 수 있었다. 肅洞의 李允用的 집이었는데 지금의 헌법재판소 지리이다. 李允用은 李鎬俊

왕비 민씨가 일본인에 의해 시해되고 高宗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후(俄館播遷)한때 靑露派가 특세했으나 노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일본서 돌아와, 別技軍 別官職을 맡고 있던 안경수(安靑壽)등이 황제폐위의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아 일본으로 도주했는데 그와 친분이 있던 민영익도 연루된 혐의로 신변이 위태롭게 된다. 민영익은 축재한 재산을 上海로 빼돌리고 중국으로 망명한다. 그러면서 재기의 기회를 엿보았으나 그런 기회는 끝내 오지 않았고 上海에서 객사했다.

허긴 당시 정계에 등장했던 인물 대원군을 비롯한 金玉均·金弘集·朴泳孝·李容燾 등등 거위가 비극적 최후를 마쳤거나 불행한 처지에 빠졌던 것이다.

시대의 변화가 인물들을 죽이거나 못쓰게 만들었다고 할까? 거꾸로 말하면 유능한 인물도 시대를 잘타고 나아간다는 역사의 무서움을 일깨워 준다.

인물이 역사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으나, 이런 때우 드른 경우이고 대개는 시대의 파도속에서 인간존재의 왜소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필자는 본회 회원으로 소설가이며 KBS 시장을 역임했고 현재 예술원 회원임)

척신정권의 귀공자 閔泳翊의 기구한 운명

均·洪英植·徐光範 등과도 친교를 맺었다. 壬午軍亂후, 일본에 특사로 파견되었는데 이때 金玉均도 함께 갔다.

美國공사 푸트(L.H Foote)가 서울에 부임한 후 영익은 친선사절로 미국을 방문, 각지를 시찰했다. 이때 洪英植·徐光範·俞吉潑 등이 수행했고 유명을 거처 귀국했다. 귀국후 협판군국사무(協辦軍國事務 : 국방차관 격)겸 우영사(右營使)가 되었다. 그러나 민씨 척신정권내의 개화·진보파였는데 金玉均, 朴泳孝 등과 틀이 벌어져 차츰 서로 소원해졌다.

왕비가 개화파를 불신하고 가문의 어른들 태반이 靑淸이어서 일본을 통한

의 서자로 完用의 형이다.

廣惠院은 정변후 불수한 洪英植의 집 (을지로2가 전 외환은행 본점자리)으로 옮겼다가 경영년에 빠지자 미국인 실업가 세브란스(L.H Severance)의 후원으로 북사골(桃洞:서울역 건너편)로 신축 이전하여 '세브란스병원'으로 개칭했고 그뒤 延世대로 합쳐진 것은 다 아는 일이다. 이렇게 보니 조선조말 격동기에 등장했던 인물 군상들이 오늘날의 우리의 상상력을 흥미있게 자극한다.

閔泳翊은 그뒤 외세의 각축장이 된 한반도 정세의 어지러운 변화속에서 제대로 항로를 잡지못해 불행한 운명을 맞게 된다.

KBS는 지금... KBS는 지금... KBS는 지금... KBS는 지금... KBS는 지금...

정사장 '경력기자공채 검토'

정연주사장은 4월 3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투명성이 담보 됐으므로 신입사원 외의 우수한 인력을 선택적으로 채용할수 있는 단계"라며 "다양하게 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도본부내 기자들은 "순연주의 타파·내부경쟁력 보강"이유로 찬성과 "조기적응불투명·기수체계 혼선"을 들어 반대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KBS 교향악단 현충일 특별연주회

KBS 교향악단은 6월 3일 여의도 KBS홀에서 현충일 특별 연주회를 갖는다. 연주곡은 베르디의 진혼미사곡 '레퀴엠'으로 창원시향 장운성의 지휘로 소프라노 김은주, 메조소프라노 이현정, 테너 김남두, 바리톤 임성규 등이 협연자로 나선다.

'도전 새로운 인생' IRIB 프라이즈

지난해 3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송년기획 '도전, 새로운 인생'이 이란 국영방송 IRIB 라디오 프라이즈에서 2등의 영예를 안았다. 모두 102개 작품이 출품된 이번 행사는 환경, 가족, 이민, 협력 및 평화공존 등 4가지 주제로 열렸으며 KBS는 처음으로 출품했다.

'아침 마당' 대통령 표창

1TV '아침 마당'이 '가족학의 다양한 모습을 진술하고 따뜻한게 풀어내며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제1회 가정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91년 5월 20일 첫 방송을 내보낸 이후 15년 동안 심심보감, 부부탐구, 그 사람

이 보고 싶다, 해피타임, 선택 생생토크, 가족 노래자랑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시청자들의 관심과 이해를 넓혀왔다.

KBS 나눔경영 실천에 나서

KBS(대표 김성호)는 창립 5주년에 즈음하여 4월 25일부터 기념주년을 마련하고 백혈병환자를 위한 폴수익식 수술비 지원과 사랑의 한혈등의 행사를 벌였다. KBS는 KBS프로그램 유료 VOD 매출액의 3%를 백혈병환자 수술비에 지원한다.

4월 25일 KBS 별관에서 KBS 임직원이 한혈에 앞장섰다.

공영성·경쟁력 강화 TV·R 불철개편

5월 2일 볼 개편에서 1TV- '한 국민 중심 채널', 2TV- '넓은 감각, 온 가족의 문화채널'이라는 편성방향 속에 대표 프로그램의 명품화를 선언했다.

1TV는 광복 60주년 특별기획으로 'HD 역사 스페셜' '누가 누가 잘하나' 등을, 2TV는 오픈개그프로그램 '개그사냥', '닥터 후' 등을 신설했다.

라디오는 1라디오-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 '뉴스 와이드 4부', 2라디오- '홍수환 이승연의 라디오 챔피언' 등을 신설 채널

별 거점 프로그램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독도사랑 DVD 출시

KBS미디어가 독도 영상보고서인 '우리 땅 독도, 365일의 기록' DVD를 출시했다. 이 DVD는 1992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독도에 직접 거주하면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독도의 4개가 사실감 있게 담겨져 있다. 또 독도의 비경 사진 140여점과 유엔 업서 10장이 함께 수록됐다.

'역사스페셜' HD가상 스튜디오 오픈

볼 개편으로 신설된 광복 60주년 특별기획 'HD역사 스페셜' 제작을 위한 가상 스튜디오가 오픈 됐다. 첫 방송 '한반도의 첫 사람들' 등 우리 역사를 시대별 총 65개 주제로 다룰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스튜디오 오픈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역동적인 영상미를 발휘, 프로그램 명품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 같다.

제주총국 환경대상 수상

제주총국 조감섭·이광우기자와 박효철·이찬우·정인수·홍성준·유재광·강규원 편성제작팀이 2005년 제2회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했다.

부산총국 KBS 수요노래교실

부산방송이 주최한 KBS수요노래교실이 5월 11일 KBS부산홀에서 4,0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첫 수업에 들어갔다 볼 개편에서 '싱어송' 노래로 여는 세상이 월1회 공개오락프로그램으로 제작 방송되고 있다.

상반기 친목활동 성료

대형 추계친목행사 기획중

남시대회(분과위원장 김원참)에 이어 5월에 들어 바둑대회(변정호)와 등산대회(오정탁)가 많은 회원들의 참여와 성원으로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다.

한편 친목활동위원회는 모든 회원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형 이벤트를 기획중이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을 띠었다. 이치순 회우 등 원로대가들도 참가.

- A조 = 우승 윤두림, 준우승 이내일, 3등 정진선
- B조 = 우승 한 관, 준우승 김육상, 3등 이인기
- C조 = 우승 허 환, 준우승 김성태, 3등 이치순

▲등산 5월 13일 오전 11시에 시작한 등산대회는 구기터널에서 승가사와 대남문까지 오르며 코스를 등반했다. 박경환 회원을 비롯한 80여명의 회원이 참여. 북한산 계곡과 숲을 따라 곳곳에 자리를 펴고 사우회에서 제공한 점심을 들면서, 정다운 얘기를 나누며 또한나의 추억을 만들어 갔다.

▲바둑 5월 11일 오전 11시 '신대원 삼거리 기원'(최관원 회우 윤영)에서 열린 바둑대회에 32명이 참가. 윤두림(아마 3단) 회우는 A조 우승과 함께 아마 4단으로 승단, KBS사우회에 큰 경사를 안겨 주었다. 그리고 B조의 한 관(4급)회우가 3년만에 3급을 승급, 아마 초단

사우회만평



땀흘려서 즐거운 일...

요즘 어떠세요?

吳基完 선배와 차 한잔 나누며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나라위해 목숨 바친 애국지사와 전쟁용사의 호국 정신에 머리숙여지고 6·25를 생각하게 된다. 현재의 한반도 사태는 북한이 핵 보유에다 핵실험까지 한다고 떠벌리고 있는 등 불안하다. 어느새 6·25전쟁이 발발한지 55주년. 현재의 어수선한 상황에서 6·25전쟁을 되풀이 보고 그 교훈을 듣기위해 그 당시 인민군 장교로 남하했던 오기완(吳基完·77세)선배를 만났다.

—오선배님, 1950년 6월에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나는 김일성대학을 막 졸업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중앙당으로 가서 대위복장을 지급받고 ‘105 탱크사단’에 정치간부로 배치됐습니다.” 북한 인민군 장교는 군사간부와 정치간부로 나뉘어지는데 당시 나이 22세였던 오기완은 김일성대학 1회 졸업생의 엘리트였기 때문에 인민군의 사상교육을 담당하는 정치간부로 임명됐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6·25때 내려왔군요. 인민군 수뇌부는 어떤 명분으로 남침을 감행했습니까?

“5월 중순에 인민군은 대기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7, 108 연대 소속의 탱크들을 후방에 전개시키곤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런 일종

의 쇼였습시다. 마치 훈련인척 하기 위한 것이었죠. 저희도 6월 19일 평양에서 탱크와 함께 열차편으로 함흥으로 가 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나중에 보니 원산을 거쳐서 전방(중부전

—전선은 어땠습니까? 국군과 싸울 만 했습니까?

“도대체 이게 전쟁인가 할 정도였습니다. 국군은 도주하는 식이었으니 파죽지세로 물고 내려갔죠. 아주 싱거웠

오 선배는 51년 4월 퇴역해 3년간의 소련 유학을 마치고 당시 김일 부수상 보좌관으로 일해 오다가 북한체제에 대한 실망과 혐오감 등에 빠져 63년 남한에 귀순했다. 그는 그후 KBS에 입사해 15년간 사회교육국에서 방송위원으로 김일성과의 전과전쟁을 해왔다.

—남한은 그동안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펴 왔는데 북한은 변했다고 보십니까?

“나는 그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대남전략이 바뀌지 않았습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남한은 미제국주의에서 해방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잡고 있으니까요”

—북한은 스스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한에 대해 도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렇게는 하지 못 할 겁니다. 그러나 남한 내부의 상황 변화가 그들 선택의 변수 일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핵무기는 절대로 포기 할 것입니다. 핵무기는 그들의 생존문제이기 때문이죠”

吳선배는 요즘도 등산과, 각곡(角角)의 145m 요곡을 겨냥하며 건강을 유지하면서 소주한잔의 즐거움을 만끽한다고 했다.

남한에선 6·25때 우리를 도와준 미군을 불려가라고 외치는 젊은이들이 많고, 국민의 약 80%가 6·25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로 바뀌었다. 북한도 이같은 세대 변화가 있었을텐데 어째서 도무지 변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며 오선배의 말을 되씹어 봤다.

글 / 김선기 사진 / 이준문

김일성大 출신 정치장교... 北과 전과전쟁 “對南戰略 不變, 핵포기 안할 것”



선)으로 배치 된 것을 알았습니다”

습니다”

파죽지세로 탱크 남침 물고 내려와

대위였지만 당시 오 선배는 “뭔가 이상한 것 같지만 전쟁이 날것이라곤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전방배치를 끝낸 인민군은 남한의 국군이 황해도 지역을 2-3km 쳐들어 왔다는 생떼 주장을 펴고 소위 “미제국주주의자로 부터 남조선을 해방시키자”는 명분으로 6월 25일 일요일 새벽에 남침을 시작했다.

전여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등 연합군의 참전으로 전쟁은 역전됐다. 아군은 9·15 인천상륙과 9·28 서울 수복에 이어 북진길에 올랐다. 이어서 중공군 개입으로 1·4 후퇴. 이 전쟁 톱에 민간인 약 100만, 국군과 유엔군 115만명이 죽거나 부상했다. 이 가운데 미군은 3만 3천여명이 전사했고 10만 3천여명의 부상자를 냈다.

방송비평

올해 상반기 KBS-TV 드라마는 바다를 정복한 영웅들이 파도처럼 격랑을 일으키면서 희미한 맥박에 생동감을 불어 넣었다.

- ◆ ‘海神’과 ‘불멸의 李舜臣’
- ◆ 매미집 이순신 장군 탄신 46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특집이 집중 방송되었다.
- ◆ KBS 네트워크연결 6시 내고향
- ◆ 특별기획 2부작 이순신
- ◆ 열린음악회 (총남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백민은 죽지않고 사라질 뿐’이라고 한 맥이더는 전쟁에는 승리를 대신 할 것은 없다고 했고, 동양의 넬슨이라는 일본의 해군제독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는 ‘이순신 장군은 나의 스승’이라는 기록을 남겼고...

정작 연전연승한 이순신 장군은 ‘天幸’이라는 겉승한 무자를 남겼다. 4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장군은 아직도 수루에 정좌해 계셨다.

- ◆ 6시 내고향 방송 : 4월 27일(수) KBS1TV PD : 함형진
- ◆ 연출:김희순 MC : 김재원·오유경

충무공 이순신 탄신 460주년을 기리는 특집 축제 한마당, 아산 현충사에서 대학생들의 퍼포먼스로 마당을 열고, 육포, 한산산에서 대첩의 전략 전술을 재구성하고 부안 격포항 드라마 촬영장에서 마무리. 거북선 판옥선(板屋船)과 일본 안택선

(安宅船)의 비교 우월성과 특히 정보전의 승리였다는 해석이 새롭게 공감을 주었고, 관공적 안내와 함께 역사적 관심과 교육적 효과도 충분했다. 드라마 자료화면과 교감에 무리가 없었고, 학익진 설명에 도표구

將軍, 戍樓에 正坐 하시다



안평선 회우 (한국방송인회 상임 부회장)

성도 실득력있었다.

- ◆ 특별기획 2부작 이순신 방송 : 4월 28일 (목) 28(금) KBS1TV PD : 구수환
- ◆ 연출 : 김희중
- ◆ 내레이터 : 송지현
- ◆ 1편 : 23전 23승 不敗의 조건
- ◆ 2편 : 일본의 기어 敵將 이순신

임진왜란 당시에 사용한 무기(천자총통, 조총)를 실제 사격실험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였고, 드라마에서 본 해상함포전은 역시 압권이었는 데 관객의 흥미도 현대 해전보다 월등 진진했다.

일본측의 많은 자료와 전문가, 후손들을 동원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접전을 벌인 양군의 규모와 진용, 전략 전술 등을 고증에 의한 비교 탐구로 드라

마를 감상하면서 역사 공부에도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다.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장면의 삽입에 의존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전을 방불케하는 장면활용은 포괄적으로 흥미와 완성도를 한층 높여주는 적절한 구성이었고, 드라마 감상에 도움을 주는 해설적인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특집은 전부집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포탄 등 무기공급과 군량 등 군수품 조달은 어떻게 해결 했는지? 왕실과 행정 관리 및 국민적인 관심과 동태도 증명했다.

이번 특집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일본의 문헌자료들이 패전의 역사이지만 대체로 정확하게 기록돼있고 관계전문가들의 견해가 사실에 솔직했다는 점, 특히 일본 교과서에 이순신 장군의 사진과 함께 실려 있고 관련학계가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도 구국의 성웅으로 추앙하고 있지만, 자칫 외형적인 행사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는 자성이 따라야 했다.

1편을 마치면서 내레이션을 이시대 우리가 배워야 할 ‘이순신학’의 핵심이라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위기의 진단을...” 문운 언급했는데, 굳이 국한해서 특정계층을 지칭할 필요가 있을런지?

※前職 PD생각

역사의 가치는 무의미한 것이지만, 23전 23승 연승의 행진보다는 실패와 좌절을 넘고넘어서 전세를 역전시켰더라면 특집 프로그램의 클라이막스가 완전 감격스웠지 않았을까 하는 못된 욕심마저 들었다.

수고했습니다

6월말 정년퇴직자

- ◆ 김양수 / 기자
- ◆ 변원일 / 기획행정
- ◆ 임재진 / 방송기술
- ◆ 고병중 / 아나운서
- ◆ 강성범 / 효과
- ◆ 안인기 / 프로듀서
- ◆ 윤국노 / 카메라
- ◆ 김용대 / 카메라
- ◆ 김용균 / 카메라
- ◆ 박근문 / 방송기술
- ◆ 윤종찬 / 기획행정
- ◆ 양성준 / 아나운서
- ◆ 유상호 / 방송기술
- ◆ 한삼호 / 방송기술
- ◆ 김명호 / 방송기술
- ◆ 윤자춘 / 청원경찰
- ◆ 이경수 / 일반업무
- ◆ 양승명 / 기획행정
- ◆ 오대환 / 기획행정
- ◆ 김두관 / 기자
- ◆ 김길재 / 방송기술
- ◆ 임동섭 / 기획행정
- ◆ 권장수 / 아나운서
- ◆ 최정택 / 기획행정
- ◆ 이춘명 / 방송기술